

치과 외래 환자의 초진시 병력에 관한 조사 연구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김 기 석

A STUDY ON MEDICAL HISTORY OF DENTAL OUTPATIENT WITH A BRIEF QUESTIONNAIRE.

Ki Suk Kim, D.D.S.

Dept. of Oral Diagnosis,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 Abstract —

The need for a brief questionnaire, written in language that the patient can readily understand, to provide the dentist with an adequate current medical history of his patient has been established. So this study with brief medical questionnaire for routine use in dental practice i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findings from its use among a survey group of 513 patients.

The results are that;

1. In 58.3 percent of the patients surveyed, at least one question was answered positively.
2. The frequency of positive responses in the various group was: medical treatment within recent 2 years, 27.5%; hospitalization, 27.1%; drug history within recent year, 25.9%.
3. The important systemic diseases being considered in dental practice are: anemia, 4.9%; hypertension, 4.1%; tuberculosis, 3.9%.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III. 연구 성적
- IV. 총괄 및 고안
- V. 결 론
- 참고문헌

I. 서 론

현대의학과 치료제의 많은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이 치과

에 내원하게 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들은 치료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하며 계속 치료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내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오히려 치과 치료를 수행하기가 용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자들은 자신들의 질환을 잘 알고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 건강상태 및 투약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많은 환자 중에서는 자신의 증상이 늙어감에 따라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치과의사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신체적으로 기능장애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

에 질환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좋지 못한 전신적 상태를 알고 있지만은 치과의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환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전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의심되어 질때는 치료 전에 medical consultation 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의무라 하겠다¹⁾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치료와 건강을 부여코자 많은 연구가 시도 되어 왔다.

Burket²⁾, Fitzgerald³⁾ 의 많은 학자들이 치과 환자의 전신 건강을 평가하여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분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58년 Cheraskin⁴⁾ 은 전신질환이 여러가지로 구강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Ostrand⁵⁾ 는 치과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전신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현재 및 과거의 약물 치료에 관하여 강조 하였다.

1962년 Gorden 등⁶⁾ 은 외과적 측면에서 본 치과 환자병력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1969년 McLundie 등⁷⁾ 과 1975년 Halpern 등⁸⁾ 은 치과치료시 환자의 전신상태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1971년 McCarthy⁹⁾ 는 치과병원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망에 대하여, 1973년 Simpson 등⁹⁾ 은 구강진단시 외견상 양호한 환자의 전신건강평가에 대하여 보고 하였다.

또 1974년 Caranasos 등¹⁰⁾, 1975년 Karch 등¹¹⁾, 1979년 Cottone 등¹²⁾ 은 약물복용과 병력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질환과 병력을 가진 환자 및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움으로써 환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의사 자신의 건강과 나아가서는 법의학적 측면을 위해서라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고등(1980년)¹³⁾ 이 보고한 것외에는 소홀한 형편이다. 따라서 저자는 환자의 병력을 Screening 하거나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전신상태를 조사하고자 1977-1978년 Accepted dental therapeutics에 수록된 10개 문항으로 된 Short form¹⁴⁾ 을 일부 변형(도표 1 참조)하여 치과외래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였던 바,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조사는 1984년 1월부터 1984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진료부 구강진단과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도표 1 참고)를 하였으며 이 중 대담에 충실한 513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 하였다.

조사된 환자 중 229명(44.6%)은 남자였고 284명(55.4%)는 여자였다.

치과환자의 병력에 관한 설문지

병록번호 _____ 성 명 _____
 성 별 _____ 나이 _____ 세
 날 자 _____

다음은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진료부에 내원하 하는 치과환자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자 료를 제공하고자 이 조사를 하오니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구강진단과)

1. 당신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2. 당신은 지난 2 년간에 의사의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3. 당신은 최근 1 년간에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4. 당신은 케니실린이나 다른 약에 알레르기 (또는 부작용)가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5. 당신은 수술 후나 상처를 입고 지혈이 잘 안 되어 고생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6. 다음에 열거한 병 중에서 앓으신적이 있거나 앓고 계시면 ○표를 해주시오.
심장병(선천성 혹은 후천성), 고혈압, 백일해, 관절염, 당뇨병, 결핵, 간질, 간염, 빈혈, 정신질환, 류마치스염, 뇌졸중(뇌일혈), 황달, 천식, 축농증.
7. 현재 임신중이신지요 (여성)
(예 , 아니오)

8. 당신은 요즘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지요?
(예, 아니오)

서기 198 년 월 일

본인 또는
보호자 서명 이름

Ⅲ. 연구 성적

1. 성별 및 평균 응답 빈도: 본 설문지에 대한 성별 응답 빈도는 Table 1에서와 같이 남자 외래 환자의 58.5%, 여자외래 환자의 58.1% 평균 58.3% 이었으며 남자외래 환자의 31.4%, 평균 32.7%가 2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대답하였다.

Table 1. Frequency of positive response according to sex

Sex	Patlents surveyed	Patients with positive response		Patients with multiple positive response.	
	No.	No.	%	No.	%
Male	229	134	58.5	72	31.4
Female	284	165	58.1	96	33.8
Total	513	299	58.3	168	32.7

2. 연령별 응답 빈도: 본 설문지에 대한 연령별 응답은 Table 2에서와 같이 10세군에서는 36.8%, 20세군에서는 52.9%, 30세군에서는 63.9%, 40세군에서는 79.7%, 50세군에서는 77.1%, 60세 이상군에서는 80.6% 였으며 연령과 더불어 증가되었다.

Table 2 Frequency of positive response in different age groups.

Age group	Patients surveyed	Patients with positive responses		Patients with multiple positive responses	
	No.	No.	%	No.	%
up to 19	125	46	36.8	22	17.6
20 - 29	157	83	52.9	39	24.8
30 - 39	83	53	63.9	30	36.1
40 - 49	69	55	79.7	37	53.6
50 - 59	48	37	77.1	24	50.0
60, older	31	25	80.6	16	51.6
Total	513	299	58.3	168	32.7

3.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빈도: 본 설문지의 8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보면 Table 3에서와 같이 최근 2년내 의사 치료 유경력이 27.5%, 입원 경력이 27.1%, 최근 1년내 약복용 경력이 25.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 도표 2에서와 같이 8개항중 손수운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높은 유경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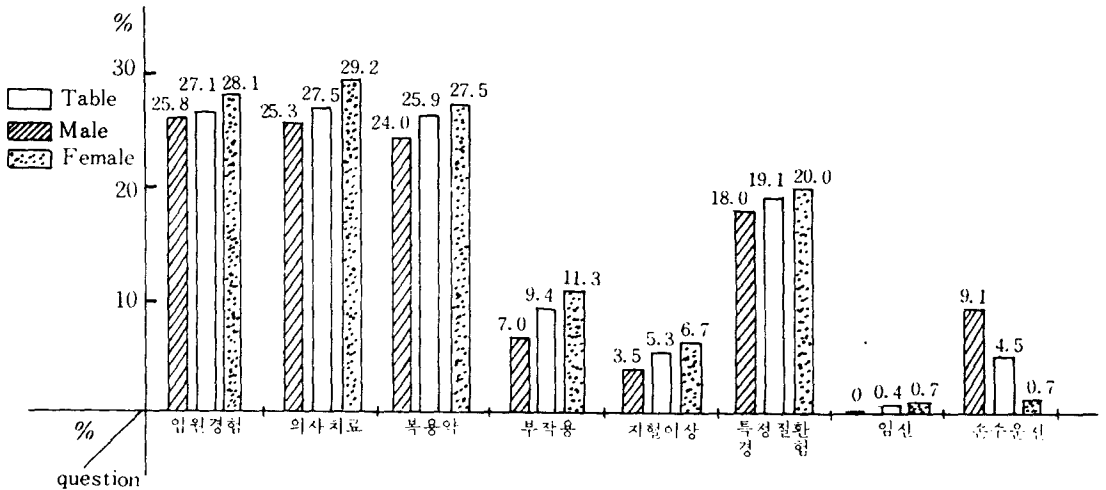
Table 3. Frequency of positive history in different question group.

question group	Patients with positive response					
	Male		Female		Total	
	No.	%	No.	%	No.	%
1. 입원 경험	59	25.8	80	28.1	139	27.1
2. 의사치료경험 (2년내)	58	25.3	83	29.2	141	27.3

3. 약복용경험 (1년내)	55	24.0	78	27.5	133	25.9
4. 부작용경험	16	7.0	32	11.3	48	9.4
5. 지혈이상	8	3.5	19	6.9	27	5.3
6. 특성질환경험 (설문지참조)	41	18.0	57	20.0	98	19.1
7. 임신 유 무	-	-	2	0.7	2	0.4
8. 운 전	21	9.1	2	0.7	23	4.5

Total patient surveyed : 513
 Male patient surveyed : 229
 Female patient surveyed: 284

도표 2



4. 주요한 질환에 대한 병력 빈도: 본 설문지의 6항에서 치과치료시 유의해야 할 주요 질환에 대한 병력은 Table 4 및 도표 3에서와 같이 빈혈이 4.9%, 고혈압이 4.1%, 결핵이 3.9%의 순이었으며 총 25.1%가 주요 유병경력이 있었다.

Table 4. Frequency of significant medical Dis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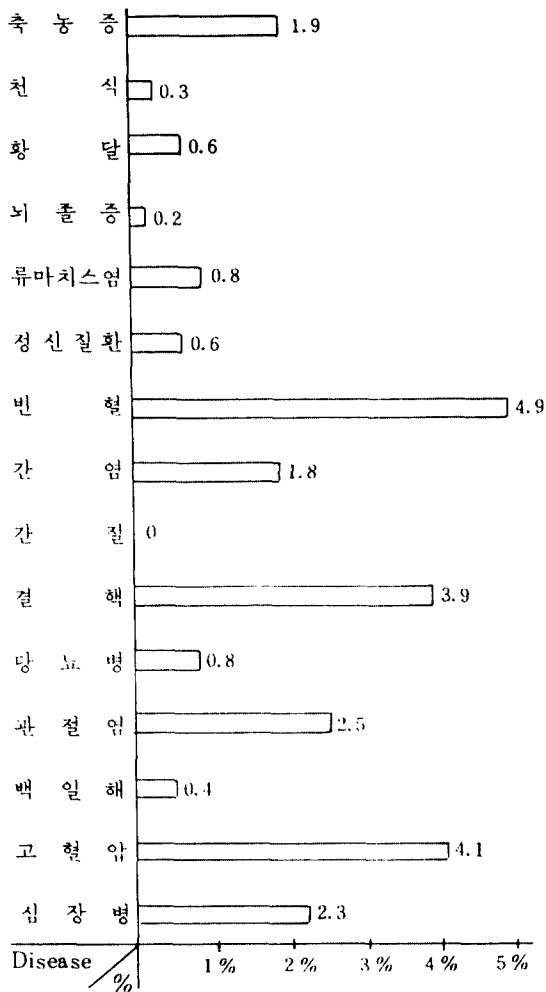
No.	Disease	Positive response	
		No.	%
1.	심 장 병	12	2.3
2.	고 혈 압	21	4.1
3.	백 일 해	2	0.4
4.	관 절 염	13	2.5

5.	당 뇨 병	4	0.8
6.	결 핵	20	3.9
7.	간 질	-	-
8.	간 염	9	1.8
9.	빈 혈	25	4.9
10.	정 신 질 환	3	0.6
11.	류 마 치 스 염	4	0.8
12.	뇌 출 증	1	0.2
13.	황 달	3	0.6
14.	천 식	2	0.3
15.	축 농 증	10	1.9
Total		129	25.1

(Patients surveyed : 512)

(개인이 가지는 여러질환을 각각 포함)

도표 3



IV. 총괄 및 고안

오늘날의 치과 진료는 예전과는 달리 점차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치과의사는 여러가지 병력을 가진 환자를 자주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환자의 치아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환자의 안전과 성공적인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치과 외래 환자가 초진시 전신병력에 관한 약식 설문지를 이용한 저자의 연구결과는 8개 항목에 관한 응답을 유병력자로 보았을 때 남자 환자는 58.5%, 여자 환자는 58.1%, 총 58.3%이었는데 고등¹³⁾의 보고에 의하면 초진시 남자 환자는 48.7%, 여자 환자는 46.6%가 한가지 이상의 병력을 가졌다고 했으며 남녀 차이를 인정치 않았다. 또 산부인과 질환 등으로 여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실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병력 사실의 은폐에 있다고 추정하였다.

저자의 연구 결과가 다소 높은 유병력률을 보여준 것은 제 7항의 임신 유무와 제 8항의 손수운전에 관한 것이 병력에 추가 되었기 때문이라 보며 또한 1항에서 6항까지 질문 중 1항, 2항, 6항이 서로 반복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각 항목에 대한 성별 응답 빈도를 보면 입원 경험에서 남자 환자 25.3%, 여자 환자 28.1%, 2년내 의사치료 경험에서 남자 환자 25.3%, 여자 환자 29.2%, 약복용 경험에서 남자 환자 24.0%, 여자 환자 25.9% 등으로 응답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앞서 이야기한대로 평균적으로 여자 환자의 응답이 남자환자를 앞서지 못했으나 각 항목별 빈도에서 8항인 운전 경력을 제외하고는 미소하나 여자가 앞서고 있는 것은 Table 1에서와 같이 여러 경력을 동시에 가지는 환자들이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초진시 치과에서 유의해야 할 전신질환에 대한 빈도는 빈혈, 고혈압, 결핵, 심장병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고등¹³⁾에 의하면 위궤양, 빈혈 등의 순으로 보고하였으며, Cottone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 의하면 고혈압, 편도선제거수술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이한 발병률의 차이에 기인된다고 보며 고 등의 보고에서는 위궤양이 많이 나타났으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위궤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 Table 3의 특정질환 경험의 19.1%와 Table 4의 특정질환의 병력빈도 25.1%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Table 3은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를 조사한 것이며 Table 4는 여러질환을 동시에 가지는 응답자의 경우 여러 특정질환을 따로 계산하여 각 질환에 대한 빈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차이라고 사료된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 중에서 제 7항의 임신여부에 대한 것은 임신환자의 조사가 적어 항목의 의

의에 대해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며 제8항의 운전 여부 역시 점차 사회발전에 따라 자가 운전자 가 증가하여 치과 치료 후 치료에 의한 약물, 특히 정온제나 수면제, 진정제 등을 투여시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의 예방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상호관계에 대하여 좀 더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전신병력을 조사함에 있어 이와같이 설문지 이용 조사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복잡하여 완성시키기까지 시간 및 노력에 대한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creening program 에 대한 필요가 요구 된다고 사료 되었으며 아울러 적은 시간으로 정보를 알아낸다는 것은 많은 환자들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치과의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조사와 같이 간단한 설문지 이용방법이 항상 정확한 것이 아닐지라도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도록 주의를 환기 시켜주며 아울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감별해 내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적은 시간으로 치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의 치과 치료시 유의해야 할 병력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저자는 1984년 1월부터 1984년 4월까지 치과 환자 513명을 대상으로 초진시 약식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병력을 조사 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 외래환자의 유병 경험률은 58.3%, 2가지 이상의 유경험자는 32.7% 이었으며 연령과 더불어 증가 되었다.
2. 각 항목에 대한 경험은 최근 2년내 의사치료 경험 27.5%, 입원경력 27.1% 최근 1년내 약 복용 경험 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주요한 병력으로 생각되는 질환은 15개 전신질환 중 빈혈 4.9%, 고혈압 4.1%, 결핵 3.9%등이었으며 내원환자의 15개 주요 전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은 25.1%이었다.

(끝으로 지도와 교열에 힘써주신 이승우교수님, 정성창교수님, 김영구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을 주신 구강진단과 의국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Halperm, I.L.: Patients medical status — a factor in dental treatment. *Oral Surg.* 39(2): 216-226, 1975.
2. Lynch, M.A., Brightman, V.J. and Greenberg, M.S.: *Burket's Oral Medicine*, 8th ed. Philadelphia, J.B. Lipincott Co. 1984.
3. Fitzgerald, L.M.: The American Society of Oral Surgeons, etc, *J. Oral Surg., Anesth. & Hosp. D. Serv.* 17:5, 1959.
4. Cheraskin, E.: Preventive Medical Case-Finding Opportun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dentist, *D, Clin. North America*, PP. 283-296, July, 1958.
5. Ostrander, F. Darl: The dental significance of Medication for Systemic Disease, *D. Clin. North America*, PP. 297-308, July, 1958.
6. Gordon, S.G., and Halpern, I.L. Medical aspects of ental patient history. *Oral Surg.* 15:1270-1276, 1962.
7. Mclundie, A.C., Watson, W.C., and Kennedy, G.D.C.: Medical Status of patients undergoing dental care, an assessment. *Br. Dent. J.* 127-265-271, 1969.
8. McCarthy, Frank M.: Sudden unexpected death in the dental office, *JADA* 83: 1091-1092, 1971.
9. Simpson, Theodore H., and Halpern, I.L.: The Health Appraisal of the "Apparently well" Patient in Oral Diagnosis, *J. Dent. Educ.* 37: 27-30, 1973.
10. Garanasos, G.J. Stewart R.B., and Cluff, L.E.: Drug-induced illness leading to hospitalization. *JAMA* 228: 713-717, 1974.
11. Karch, F.E., and Lasagna, L.: Adverse drug

- reactions, a critical view. JAMA 234: 1236-1241, 1975.
12. Cottone, J.A., and Kafrawy, A.H.: Medications and health histories; a survey of 4,365 dental patients, JADA. Vol. 98: 713-718, 1979.
13. 고경용, 전성창 : 초진시 치과환자가 복용중인 약과 병력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내과학회지, 5 : 17-25, 1980.
14. 정성창, 이승우, 김영구 : 구강내과학, 고문사 : P 12~13, 1984